

# 고창 생활인구, 주민등록의 4.6배

### 행안부·통계청 조사 지난해 4~6월 기준 24만2247명 거주 외국인계절근로자 정착 유도 주거·복지 지원사업 등 추진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고창군의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의 5배 육박한다는 정부의 산정 결과가 나왔다.

고창군은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발표결과 고창군의 생활인구(2023년 4-6월 기준)는 24만22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내국인과 등록 외국인을 합친 현지 '등록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른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지난해 6월 기준 고창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5만1994명이었지만 고창군의 생활인구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실제인구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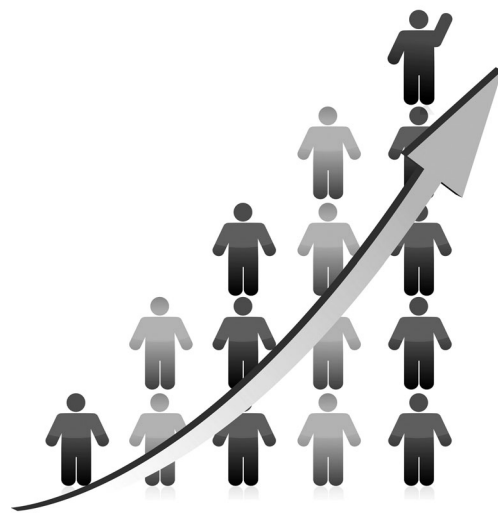
지난해 600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해

일손을 도왔고, 올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16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허가를 법무부로부터 받아내 고창군의 생활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월에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도 준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더 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외국인 생활인구가 많은 경우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정착유도 사업이나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군이 만들어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인구 소멸 지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란 걸 잘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산정 자료를 토대로 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생활인



구를 늘리는 정책 발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명칭, 고창 식품산업연구원

### 올해부터 공식명칭 변경 식품산업·미래 정책 선도

고창군의 식품산업을 선도할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연구원은 지난 2023년 12월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명칭 변경에 대한 정식 승인 통보를 받았으며 올해 1월1일부터 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고창군은 출연기관인 기존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명칭을 변경하고 고창군 전체 식품산업과 미래 정책을 선도할 연구원으로 업무와 활동영역을 대폭 넓혔다.

고창의 지역발전과 식품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싱크탱크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올해 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사업(사업비 9억6000만원)을 통한 식품기업의 관광산업 활성화 ▲맞춤화 김치 소재 6차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사업비 20억원) ▲한국탄소제로 에너지 클러스터 기반구상 및 타당성 발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군의장, 군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김성수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하고 새 출발을 알렸다. <정읍시 제공>

굴용역(사업비 9000만원) ▲고창군 미래전략사업 발굴용역(사업비 9000만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원 이사장인 심덕섭 고창군수는 "새 이름을 갖게 된 만큼 고창경제를 선도하는 식품산업과 지

역발전 전략 R&D센터의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며 "지역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고창군민에게 사랑받는 연구원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목기의 고장' 남원, 목공예 전시관 건립

### 노암동 합파우 유원지 150억 들여 2026년 완공

'목기의 고장' 남원에 울창목공예 전시관이 생긴다. 남원시는 울창목공예 전시관을 노암동 합파우 유원지에 2026년까지 건립한다고 밝혔다.

전시관은 '목기의 고장' 남원시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150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2층, 전체 건물 면적 2400㎡ 규모로 들어선다.

남원시가 주최하는 전국울창목공예대전 수상작들과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실

과 수장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실 등을 갖춘다. 시는 전시관 건립을 통해 특화산업인 울창목공예 산업을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자원화하고 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도 꾀할 계획이다.

남원 목기는 조선 시대 왕실 진상품으로 바쳐졌을 만큼 전통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시관을 남원 목공예 문화가 한국을 선도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남원 하수관로 정비 예산 19억 추가 확보

남원시가 2024년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8억 6000만원을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추가 확보했다.

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환경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 시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아영인공지구(아영면, 인월면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2024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추가로 요구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 삶의 질 확보 및 환경보호를 위해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시, 대학 신입생·취준생에 100만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정읍시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취업준비생과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정읍시는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들에게 등록금과 초기 정착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전선에 나서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취업과 구직에 필요한 구직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고등학교 졸업생과 2023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 학생 본인을 포함해 아버

지 또는 어머니가 정읍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둔 학생이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은 합격자에 한해 신청받으며, 신청 기간은 연말까지 할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우수한 지역인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지원사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정읍출신 하정열 화가, 중국서 초대전

### 이달 중순까지 허베이 미술대 전시장서 20여점 선보여

정읍 출신 하정열 화가의 중국 초대개인전이 중국 허베이 미술대학교 전시장 두 곳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중국 허베이미술대학교의 초청으로 150호 작품 5점을 포함해 20여 점의 작품으로 구성된 개인전은 1월 중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하 화가는 꿈은 동서양의 사상과 멋을 '우주 시(詩)'와 '우주 그림'으로 융합해 우주의 세계에서 조화시켜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우주화가로도 불린다. 그는 우리 고유의 태극과 음양오행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먹과 오방색 그리고 한지(타종이)를 서양화의 기본 재료인 유채와 캔버스에 융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 화가는 독일육군사관학교를 나와 38년 동안 조국수호에 헌신한 예비역 장군이다. 홍대 미술대학교 생활디자인과장과 홍대 미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이수했으며 17년째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그의 27번째 개인전이다. 국제아트페어 30여 회, 국내외 단체전에 280여 회를 출품한 그는 최근 정읍시청에 대작을 기증해 화제를 모았다.

하정열 화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동서양의 사상을 융합하고, 우주에 대한 시대정신을 구현한



전시관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하정열 화가. 독특한 창의적인 형태로 관람객들에게 다가서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